



# 해님달님작은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 해님달님들이 모여 오랫동안 꾸어온 꿈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부설 도서관입니다. 해님달님이라는 이름은 이 회의 전신인 '수원 동화읽는어른 모임'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요. 지금도 수원지회는 서로를 해님달님 가족이라 부르지요. 해님달님들이 모여 오랜 시간 함께 꾸어온 꿈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그렇게 만들어 졌지요.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랑방의 공간을 넘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고자 합니다. 그 아지트에 좋은 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어른이 서로 만나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이용자와 봉사자, 운영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진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해 가벽과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전후로는 잠까지 설치했습니다.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으려 일일이 다니는 건 사실 힘들었어요. 제한된 금액으로 조건에 맞춰 지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업체를 알아봐주고 공사할 때는 열일 제쳐두고 도서관에 나와 작업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모두 활동가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덕에 좋은 결과를 낸 걸로 생각합니다.



▲ 가벽과 출입문 설치

이번 기회로 오래된 짐들을 꺼내 풀어보고는 옛 생각에 즐겁기도 했지요. 공사와 더불어 대청소를 두어 번 했을 때입니다. 오래된 짐들을 꺼내 풀어보며 추억도 함께 되새겼습니다. 그래도 버릴 건 버려야 새로운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도서관은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에 따라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뿌듯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창고 공간에 가벽과 출입문이 설치되자, 단성과 함께 물개박수를 치며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 자리에 앉아보던 날이 생각납니다. 도서관이 넓어지고 예뻐진 것 같다는 이용자들의 말에 우쭐하기도 했고요. 무릎이 아프신 동네 어르신들께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좋아하시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냐고 묻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너희들 책 많이 읽으라고 의자도 사놓고 좋은 책꽂이도 넣었다고 하자 배시시 웃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던 그 날도 생각나요. 이런 맛에 합니다.

요즘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 모두 도서관이 넓어졌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는 책들은 쾌적함과 거리가 멀었거든요. 책을 읽기가 더 좋아졌다는 말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적되는 건 검색용 컴퓨터입니다. 사서에게 일일이 찾아봐 달라하기도 뭣하고 혼자서 찾다니 힘들고요. “다른 공공도서관엔 다 있어요. 그러니 해님달님에도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차차 더 고민해봐야겠지요.

##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8년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등지로 더 확실하게 변신해보려 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쉼터,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상과 주제, 그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가들의 나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도서관이 살아 움직이게끔 열정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쉽지 않은 길, 든든한 벼으로 힘이 되어주니 늘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